

“유기농 배 표준 재배기술 보급에 앞장”



허정철 영암 새생명농원 대표

먹거리 안전 유기농업 고집 게르마늄 농법 개발 ‘기찬배’ 일반 배보다 5배 가격... 연 2억원 매출

외선과 게르마늄 등을 이용한 ‘기찬배’를 재배, 일반 배보다 5배 이상 높은 값에 거래한다.

지난 2011년 ‘㈜유기식품평가원’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획득, 현재까지 8년째 유기농 배를 생산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은 토양 관리와 작물의 병해충 방제, 토양 분석, 수질 분석 등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받을 수 있다.

배의 경우 태풍이나 병충해 피해가 잦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최소 2년이나 걸린다. 재배 기간도 8개월 이상으로 벼 등 다른 작물에 비해 3-6개월이 더 길어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품목으로 꼽힌다.

친환경농업 경력 15년째의 베테랑 농부인 허 대표는 적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농사법을 연구하다 유기농산물에 관심을 갖게 됐고, 2004년부터 배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은 토양 관리. 허 대표는 기능성 세라믹, 게르마늄 등 50여종의 물질에 유효미생물을 배양해 토양에 뿌려주고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까지 재배해 땅심을 높이는 작업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꽃이 피는 잡초가 함께 자라도록 해 병해충의 천적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그 결과 땅 속에는 지렁이와 많은 토양 미생물이 자라고, 무당벌레 등 천적곤충이 늘어나 병해충을 막을 수 있었다.

여기에 고동어, 장어 등 생선과 미나리, 썩 등을 혼합해 직접 만든 영양제를 배나무에 뿌리고 원적외선까지 쬐어(방사) 배의 면역력을 높였다. 배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배나무굴나방’은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방제했다.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 배는 ‘기찬배’라는 브랜드로 온라인과 직거래, 학교급식 등을 통해 판매한다.

일반 배보다 5배 이상 비싼 8만원(5kg 당)에 팔아 연간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허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우려스러워 유기농업을 고집하게 됐다”며 “앞으로 유기농 배를 누구나 재배할 수 있도록 표준재배 기술을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농업 전문가들마저도 친환경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꼽은 품목인 배를 8년째 유기농으로 재배해 역대 소득을 일군 농가가 주목받고 있다. 영암 시종면에서 새생명농원을 운영하는 허정철(62)대표가 주인공. 허 대표는 1.7ha규모의 농원에서 원적



북부소방서, 소방안전 체험부스 운영
광주북부소방서는 지난 14일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에서 소방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WISET 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 산학 연계 교육
목포대학교 WISET전남지역목포대사업단은 최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거래소 교육센터와 연계해 ‘차세대 전력인 양성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목포=강성우 기자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 교사환경연수

환경부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인 ‘제8회 초·중등 교사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담양군 수북면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센터장 박종철)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와 전남자연환경연수원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사연수는 도내 유·초·중등 교사와 교육전문직 20명이 참가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외국 환경교육의 동향 인식, 환경보전 생활화를 위한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직무연수 첫날은 김원강 박사의 환경특강, 순창 산림박물관 견학, 담양 죽녹원 조류탐색을 체험했다. 또 박종철 박사의 지구환경과 천문우주 특강에 이어 토성과 화성을 직접 관측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다음날은 숲속탐방, 자연물 공작 및 친환경 배지 만들기, 친환경 염색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결집됐다.

이강열 이사장은 “이번 환경교육 직무연수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등 환경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폭염 현장점검 실시

분야별 안전점검 기준 마련

광주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유광중)는 지난 14일 광주역 행복주택 등 대형 건설현장과 공동주택, 공공 및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폭염 관련 확인 안전점검 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도시공사는 분야별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해 폭염 기간 건설현장 휴게시설, 제빙기, 물품(식염 포도당, 얼음물 등) 확보, 안전모 차양, 팔토시, 아이스조끼 등을 지급했다.

폭염 경보가 발표시에는 오후 2시~5시까지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육외작업을

중지하는 한편 조기 출·퇴근을 권장하고 폭염 특보 발생시 1시간 주기로 15~30분 휴식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얼음물 등을 비치하고 세대내 안내방송을 통한 폭염 기간 야외활동 자제요청 및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했다.

또 체육시설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점검과 온열환자 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유광중 사장직무대행은 “폭염대응을 재난수준에 준하여 대응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에란 기자



전남도, 중·장기 폭염 대책 마련한다

순천만에서 기후변화 포럼

전남도는 최근 재난 수준의 이례적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 차원의 중·장기 폭염 대응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지난 14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2018 전라남도 폭염 대응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은 ‘전남의 폭염 현황·전망 및 대응체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도 및

시군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임영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박사, 김경하 광주기상청 사무관 등 기후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학계·민간단체·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최근의 폭염은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향후 전남의 특성에 맞는 폭염 대응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제주 자전거열차 운행

코레일 광주본부 목포역은 에코레일 자전거 전용열차로 떠나는 ‘제주 환상자전거길/오름 자전거투어’ 상품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 목포역에 도착 후 목포-제주간 선박연계를 통해 제주도에서 3일간 환상의 라이딩을 펼친다.

라이딩은 2개 코스로 구성됐다. 1코스는 제주환상자전거길 스탬프투어 코스로 총길이 232km, 10개 인증센터를 완주하는 코스다.

2코스는 제주시에서 중문으로 넘어가

는 1,000m 고지 천아숲길과 돌오름 일대, 사려니 숲길 등 한라산 숲길 코스가 포함된 총 215km를 완주하는 오름코스다.

제주 자전거투어 상품은 매회 인기리에 운영된 상품으로 올해 유난히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 여름 동안 자전거여행을 즐기지 못한 라이더들은 제주도 바닷길을 달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다.

에코레일 자전거열차 예약 및 문의는 목포역 여행센터 (061-242-7728)로 하면 되고, 목포역 카페(cafe.naver.com/railro7788)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찬 기자



광주서부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점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광주 아이사랑유치원과 큰빛생태자연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 현장 동승점검을 실시했다.



송정1동 경로당 복달임 행사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4일 원동 경로당 등 14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복달임 행사를 갖고, 삼계탕과 과일·떡 등을 나눠줬다. /윤영봉 기자



시교육청, 학교급식직원 보건 교육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4일 광주 교육연수원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 인 조리사, 조리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학교급식전담직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급식 전담직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 산재사고 예방에 필요한 근무요령을 숙지해 근골격계 질환 및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이날 교육을 위해 산

역본부 박남규 본부장을 초빙해 학교 조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례별 원인과 예방대책, 주요 유해·위험 요인별 작업 안전수칙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양정기 교육국장은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안전과 건강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며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땀 흘리는 조리사와 조리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